



해외에너지 정책동향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독일, 에너지분야 연구 프로젝트에 34억 유로 투자

- 독일정부는 8월 3일 2011~2014년 에너지분야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34억 유로의 예산을 승인함.
 - 이는 이전의 투자규모보다 75% 증가한 것으로, 주로 에너지환경기금에서 재원이 조달될 예정임.
 - 상기 프로젝트는 독일의 원전 단계적 폐쇄결정 이후 수정된 발전 시나리오의 주요 쟁점에 주목할 예정임. 연구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에너지저장 솔루션, 그리드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임
- 독일 Philipp Roesler 재무부장은 에너지는 매우 중요한 아젠다로서 새로운 에너지분야 연구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독일의 에너지부문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힘.
 - 또한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EU Energy. 2011. 8.26)

중국, 6.7toe의 에너지절약계획 발표

- 7일 중국 정부홈페이지에 게재된 '12차 5개년 에너지절약·배출감축 통합 사업방안'에 따르면, 12차 5개년 기간 중 중국은 6.7억 toe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 2015년 전국 1만 위안당 에너지원단위는 0.869toe까지 줄어들어 2010년의 1.034toe보다 16% 줄어든게 되며, 2005년 기록한 1.276toe보다는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사업방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COD(화학적산소요구량), SO₂배출총량은 각각 2347.6만톤,

2086.4만톤으로 통제되어 2010년 배출한 2551.7만톤, 2267.8만톤보다 약 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암모니아 질소,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각각 238만톤, 2046.2만톤으로 통제되어 2010년에 기록한 264.4만톤, 2273.6만톤보다 약 10% 감소할 전망이다.

- '사업방안'에서는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절약·배출감축 목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합리적인 목표지표 분배를 실시할 방침임
 - 경제발전수준, 산업구조, 에너지절약잠재력, 국가 산업구조 등의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의 에너지절약·배출감축 목표를 각 지역과 각 업종에 하달할 계획임.
- 한편, '사업방안'에서는 에너지절약·배출감축을 위한 통계, 모니터링, 심사체계도 구축할 방침임.
 - 에너지생산, 물류, 소비의 통계를 강화하고, 건축, 수송, 공공기관 에너지소비 통계제도 및 각 지역 에너지원단위의 분기별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과 심사체계를 재정비하여 에너지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임.

(中國能源網, 2011.9.6)

INPEX, 인도네시아에서 가스·석유 지분 취득

- INPEX와 JOGMEC(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은 9월 21일 인도네시아의 석유·천연가스 광구를 취득함
 - 사업주체인 INPEX는 광구취득 비용을 포함 3,150만 달러를 투자하여 자원탐사를 실시할 예정임.
 -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개입찰에서 낙찰된 광구는 인도네시아 동부 뉴기니섬과 호주 사이의 아라프라



해에 위치한 바바르광구로 면적이 8,179km²에 달함.

- INPEX는 1998년 마세라광구 지분을 취득하고 2000년 시추를 통해 자원을 발견하였음, 바바르광구는 2017년 천연가스 생산 예정인 마세라광구와 근접하므로 대규모 매장량을 기대하고 있음

(日本經濟新聞, 2011. 9.21)

S&P, 미국과 유럽의 신재생에너지부문 비관적 전망

- 신용평가기관인 standard & Poor's 는 향후 1~2년간 미국과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함.

- 이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보조금제도의 만료, 어려운 경제상황, 현재 신재생에너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많은 국가들의 재정상태 악화에 기인함.

- 현재의 긴축재정과 국가부채 위기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부문에 대한 보조금을 유지해 나가기 어렵울 전망임.

- 미국에서는 대체에너지를 지원하는 3개의 주요 보조금제도가 만료될 예정임.

- 미국 에너지부(DOE)의 지급보증 프로그램, 미국 재무부의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s)와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s)임.

- 최근 미국에서는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인 Evergreen Solar, Spectrawatt, Solyndra가 파산했음.

- 특히 DOE로부터 5억 3,500만 달러의 지급보증을 받았던 Solyndra의 파산은 정치적인 연줄로 인한 지원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명분이 될 것으로 예상됨.

- EU가 202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

너지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정치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S&P는 최근 스페인, 체코, 이탈리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부진한 상황이며 향후 유럽 국가들의 긴축재정으로 현재의 풍부한 지원제도가 정치적 반대에 부딪칠 수 있다고 언급함

(Oil Daily, 2011. 9.19)

일본, 에너지정책 시안 작성일정 발표

- 일본 정부는 9월 22일 향후 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 원전의존도 감축, 신재생에너지 촉진, 에너지절약을 주축으로 한 '전원의 적정믹스' 구제안을 2012년 3분기까지 작성할 계획에 대해 발표함.

- 이에 따라 전기요금 증감 및 환경부하량을 산출한 복수의 계획안을 공표할 예정임.

- 1년간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정리한 후 2013년 상반기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반영할 방침임.

- 시안에는 2030년 이후의 원전, 화석연료, 신재생에너지 등의 구성비율과 관련된 정부의 다양한 계획이 명시될 예정임.

- 각 계획안마다 가정 등이 부담하는 전기요금 및 CO₂배출량을 제시할 예정이며, 에너지절약을 통해 전력사용량을 억제하는 목표도 세울 예정임.

- 화석연료 확보 및 발전에 대한 청정화 추진 방향이 포함될 예정임.

(中日新聞 2011.9.23)

해외에너지 정책동향



탄자니아, 중국과 석탄 및 철광석 개발 추진

- 탄자니아가 남부 소재의 Mchuchuma 석탄광과 Liganga 철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30억 달러 상당의 계약을 중국과 체결하였다고 탄자니아 Mohamed Bilal 부통령이 밝힘.

- 탄자니아 국가개발공사(NDC)는 중국의 Sichuan Hongda Group과 합작회사인 Tanzania China International Mineral Resources(TCMR)을 설립하여 상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임.

- 이번 프로젝트는 Mchuchuma 석탄광의 기초공사 및 채굴작업 그리고 600MW급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1단계와 Liganga 철광산을 탐사·채굴하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이 발전소를 통한 전력의 절반은 석탄광과 철광산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나머지는 국가 전력망에 공급될 예정임.

(Platts, 2011. 9.22)

EU집행위, 불화가스 배출감축 위한 추가조치 제안 계획

- EU집행위는 9월 26일 산업부문에서 사용되는 불화가스(fluorinated gas)의 배출감축을 위한 추가조치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이에 따라 EU는 2030년까지 현재 불화가스 배출량의 2/3 수준까지 감축하게 될 전망이다.

- 현 규정에는 불화가스가 지구 온난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장기적인 배출감축을 위한 신규 추가조치는 부재함

- EU집행위는 현재보다 기후변화에 적은 영향을 미치

거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불화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가스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함.

(Efeverde, 2011. 9.26)

미국 에너지정보청, 2035년 세계 에너지소비 53% 증가 예상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9월 19일 발표한 '세계 에너지전망 2011(IEO 2011)' 보고서를 통해 2035년까지의 에너지소비를 전망함.

-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세계 에너지소비는 2008년 대비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에너지소비 증가는 주로 인도와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에너지소비 증가에 기인함.

- 인도와 중국은 2035년 세계 에너지소비의 31%를 차지할 전망이며, 2008년에는 두 나라의 에너지소비가 전체의 21%를 차지한 바 있음.

- 2035년 에너지관련 CO₂배출량은 2008년보다 43% 증가한 432억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부분의 배출량 증가분이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Oil Price.com, 2011. 9. 22 ; New york Times, 2011. 9. 19)

쿠르드지역, '15년까지 원유 1백만 b/d 생산계획

-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의 천연자원부는 2015년까지 쿠르드 지역에서 1백만b/d의 석유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10월 13일 언급함

- 쿠르드 지역에서 개최된 한 회의에 천연자원부 측은



4년간의 원유생산 노력을 통해 올해 말 경에는 20만b/d의 원유생산이 가능할 것이며 2015년까지 1백만b/d의 원유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 쿠르드 자치정부는 2007년 이후 노르웨이의 DNO, 터키의 Genel Enerji, 중국의 Sinopec 등 다수의 외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함
- 또한, 쿠르드 자치정부는 원유생산 증가에 대비하여 인프라 시설을 업그레이드할 계획도 고려 중임.
- 쿠르드 정부는 6만b/d의 정제소 2곳의 용량을 2012년 말까지 16만b/d로 확대할 계획임
- 쿠르드 지역의 유전은 과거 후세인의 집권시절에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2003년 후세인 정권의 전복 이후 지역적인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중국, 터키, 미국 등의 국가에서 기업들이 진출하기 시작함.
- 지난 4년간 40개의 탐사정이 시추되었고 현재 약 450억 배럴의 원유와 100~200Tcf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쿠르드 정부는 추정하고 있음.
- 쿠르드 지역은 타 이라크 지역보다 정세가 안정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나 현재 이라크 중앙정부와 영토 소유권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쿠르드 정부가 외국기업들과 체결한 석유개발계약의 합법성을 두고 중앙정부와 분쟁 중임

(Reuters, 2011.10.13)

독일, 신재생에너지발전에 대한 소비자부담률 인상 예정

- 2012년 독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비율이 1.8% 증가할 예정임.

- 소비자는 Kwh당 5센트(3.592유로센트)를 신재생에너지 발전보조금으로 지불해야함.

※ 독일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소비자들은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의 일정금액을 지불해야함.

-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을 폐지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전력부족분을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 발전소 및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임.

- 독일 내 4개의 송전계통운영회사들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총 15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독일의 풍력 및 태양에너지 설비설치용량은 2010년 말 44GW이상을 기록한 바 있음

- 그러나 향후 태양광에너지 설비설치는 정부의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크게 줄어들 전망임.

영국 Ofgem, 가스 및 전력 공급회사 개혁 예정

- 영국 가스 및 전력시장 규제기관인 Ofgem(office of the Gas and Electricity Markets)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영국 내 6개 주요 가스 및 전력 공급회사들의 가격인상으로 인해 회사들의 수익이 6~10월 사이 733% 증가함.

• 이에 따라 Ofgem은 회사들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상기 회사들의 소비자 1인당 마진은 6월 15파운드였으나 10월 125파운드로 급증함.

- 정치권과 소비자단체들은 가스 전력 공급회사의 복잡한 요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함.

- 현재 요금체계에는 400개 이상의 선택사항이 존재함.